

사타 이네코(佐多稻子)와 조선

- 「조선인상기(朝鮮印象記)」를 중심으로-

朴愛淑*

目次

- 1 들어가는 말
 - 2 조선여행의 배경-조선총독부 철도국
 - 3 「조선인상기」 속에 나타난 조선
 - 3.1 경성(京城)의 아름다운 황궁우(皇穹宇)
 - 3.2 개성(開城)의 이미지
 - 3.3 평양(平壤)-신홍조선의 열기
 - 4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일본 근대문학 속에서 조선·조선인상(한국·한국인상)은 주로 남성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고, 일본 근대여성작가의 작품은 등한시되거나 검증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¹⁾ 일본인 여성

* 祥明大、日近代文学

- 1) 일본문학 속의 한국·한국인상에 대한 연구는 쓰루미 슌스케(鶴見俊月)의 「조선인이 등장하는 소설(朝鮮人の登場する小説)」(『文學研究理論』岩波書店, 1967)을 비롯하여, 박춘일(朴春日)의 『近代日本文學における朝鮮像』, 다카하시 류지(高崎隆治)의 『문학속의 조선인상(文學のなかの朝鮮人像)』(靑弓社, 1982)등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문학 속에서 한국·한국인상이 주로 프롤레타리아 계열 등 제한된 작가들에게서 한정되어 나타나며, 이들은 반드시 민족적 편견과 왜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잡지 수백 권을 다 뒤져도 그곳에는 ‘조선’이란 글 자조차 발견할 수 없고, 오락잡지에서도 같았다는 점이다. (김태준,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4, p.6)

작가가 이웃나라인 한국과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작품 속에 그려 왔는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문학이란 한시대의 악을 좀 더 깊은 악으로 파악케 하는 장치이고 어떠한 사회적 현상도 문학적 검증’²⁾ 없이는 결코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 작가 가운데, 나츠메 소세키(夏目礎石, 1867-1926), 이부세 마사지(井伏鱒), 다카하시 교시(高浜虛子, 1874-1959) 등은 단기간 조선을 여행하고, 그 인상을 소설이나 기행문 형식으로 남긴 것처럼 사타 이네코도 총독부 철도국 초대로 조선을 여행하고 「조선인상기(朝鮮印象記)」³⁾를 비롯하여 총 5편의 수필을 남겼다. 당시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초청이나 총독부 철도국 주최로 남성작가들의 外地旅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밖에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등도 조선 혹은 만주로 외지여행을 체험한 작가이다.

조선여행은 사타 이네코의 최초의 외지여행인 동시에 여성작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남성작가들처럼 여성작가들도 총독부 철도국 초청으로 조선 혹은 만주를 여행하고 그 인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쓰보이 사카에(壺井栄, 1899-1967)와 함께 1940년 6월 16일 동경을 출발하여 시모노세키(下関)에서 연락선으로 부산을 거쳐 경성(京城), 개성(開城), 평양(平壤), 금강산(金剛山)을 포함하여 경주(慶州), 불국사(佛國寺)등을 여행하고 6월 28일 귀로에 올랐다. 이듬해 1941년 만주 일일신문사 초청으로 하마모토 히로시(浜本浩, 1890-1959), 나가이 다츠오(永井龍男)등과 함께 만주를 여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재차 조선을 여행했다. 전자는 여행인데 반해, 후자는 전지위문이라는 점에서 외지여행은 ‘여성과 전쟁’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이 무렵부터 사타 이네코의 문학도 커다란 악의 사회현상 속으로 휩쓸리게 된다.

사타 이네코의 조선여행과 관련된 작품은 수필이며, 사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자유로운 글’로써 ‘소설적인 제재와는 달리 예술적인 관심이나 사회적인 관습, 역사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생활의 질서와 윤리를 존중하는 장르이고, 도덕적이며 교훈적인 내용’⁴⁾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조선인상기」는 총 4페이지 정도의 짧은 수필인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사타 이네코는 「조선인상기」에서 개성에 대한 인상을 회색으로 묘사했고, 당시 일본에서 『모던 일본』의 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던 마해송(馬海松)이 읽고서 자신의 눈에 개성은 ‘순백(白)과 자주(紫)’⁵⁾라며 한탄하는 어조로 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필자

2) 김윤식, 『낮선 신을 찾아서』, 일지사, 1992, p.323

3) 初出은 미상(未詳), 『계절의 말(季節の言葉)』(『万里閣』1941.5)에 수록되어 있음.

4) 감상문, 기행문, 일기문, 서평, 논평등이 모두 수필의 범주에 들어간다.(김은수 『수필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다나기획, 2000, p.12)

의 연구과제 임을 밝혀둔다.

본고에서는 사타 이네코의 「조선인상기」를 중심으로 개성에 대한 인상을 회색으로 묘사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경성, 개성, 평양에 대한 풍경과 여행자로서의 감흥과 인상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선여행의 배경 - 총독부 철도국

1940년 조선여행을 시작으로 사타 이네코는 중국·만주, 대만, 남방 등 전지위문과 관련하여 일본이 점령한 식민지국가에 총 7차례 나갔으며, 사후(死後)에 남긴 일정표와 수첩, 사진, 신문, 현지의 책이나 지도, 그림엽서 등 귀중한 자료의 검증을 통해 전쟁 중의 행적이 단계적으로 파악되었다.⁶⁾ 최초의 조선여행은 조선총독부 철도국 초대로 방문목적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현지보고(報告)를 위한 선전효과를 겨냥한 초대임을 배제 할 수 없다. 여성작가들이 조선 나아가 만주등지에 파견되는 목적은 중국각지의 약진모습과 대륙전선의 모습을 보고하는 선전을 위한 군용무(軍用務)이며, 선전자료(宣戰資料)의 수집에 있다.⁷⁾

1940년 6월 16일에서 6월 28일까지(12일간), 1941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조선 여행에 관한 내용들이 새롭게 사료를 통해 조명되었다. 조선을 여행하고 남긴 수필에는 「조선인상기」(初出未詳)를 비롯하여 「조선의 아이들과 그 외(朝鮮の子供たちその他)」(『新潮』1940.9), 「조선무당(朝鮮巫堂)」(1941.2), 「금강산에서(金剛山にて)」(1941.4), 「조선의 이모저모(朝鮮のあれこれ)」(初出未詳, 1942.12)등이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일본 문학연구자들에게 사타 이네코는 잘 알려진 작가도 아니며, 더구나 일련의 조선관련 작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관련 작품을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5) 마해송(馬海松)은 문예춘추사에 근무하면서 『로마(驢馬)』 동인과 알고 지냈던 인물이다. 고향이 개성이었던 그는 사타 이네코의 「조선인상기」를 읽고, 자신의 고향 개성에 대한 느낌을 <회색>으로 묘사한 점에 대해, 한탄하는 어조로 나에게 개성은 ‘순백(白)과 자주(紫)요’라고 했던 말이 마음속에 남아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 전후에 『순백과 자주(白と紫)』(1950.9)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남겼다.(졸저, 『사타 이네코의 작품연구』-인간평등의 간망, 2007, pp 159-160)

6) 전지위문에 앞서 식민지 여행의 최초에 해당하는 조선여행은 일정표(「窪川、壺井兩女史來鮮日程表」)에 의해 판명되었고, 1941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만주여행은 전지위문에 해당되는데, 사진만 존재할 뿐 일정표는 발견되지 않았다. 1942년 「대동아전쟁 문예 강연회 일정(大東亞戰爭文藝講演會日程)」으로 문예 강연을 위해 나갔던 대만여행은 사진과 일정표가 남아 있다.(長谷川啓, 「戰爭と女性」 『昭和文學研究會』, 第41卷, 2000. p.162)

7) 위의 책(pp.161-163)

『佐多稻子全集』第十八卷에 수록되어 있는 연보(年譜)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고, 자료의 빈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⁸⁾ 제18권 연보에는 조선여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1940년(36세) 여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초대되어, 쓰보이 사카에게 권유하여
조선을 여행하다.(夏、朝鮮總督部鐵道局に招待され、壺井栄を誘
い、朝鮮を旅行する)

1941년 (37세) 만주여행 귀로에 하마모토 히로시와 재차 조선을 여행하다
(滿州旅行の帰り、浜本浩と再び朝鮮を旅行する)⁹⁾

사타 이네코의 조선여행이 어떠한 경유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동행한 여성작가 쓰보이 사카에는 조선여행에 대한 인상을 남긴 작품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사후(死後)에 남긴 방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에게 가장 의문시되었던 전지위문에 대한 자료가 확인됨으로써, 『사타 이네코 전집(佐多稻子全集)』第18卷 昭和 54年 6月 10日)에 수록되어 있는 연보(年譜)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940년부터 1943년까지 약 4년간의 행적이 가필 및 수정될 예정이다.¹⁰⁾

다음은 재검토를 통해 판명된 사타 이네코의 조선여행 일정표이다.

■ 「구보가와, 쓰보이 사카에 두 여사 내선 일정표(窪川¹¹⁾、壺井兩女史來鮮日程表):

연도	일월	여 행 목 적 지
1940	6.16	23:00 東京駅 출발 (차에서 1박)
	6.17	21:00 시모노세키(下関) 도착 20:30 시모노세키발 연락선으로 출발 (배에서 1박)
	6.18	07:00 부산(釜山) 도착 13:45: 「아카츠키207(あかつき207)」로 경성(京城) 도착후 조선호텔 체크인, 철도국방문-조선신궁(朝鮮神宮)참배, 시내전망: 혼마치(本町)-종로 19:00 社団法人 JAPAN TOURIST VIEWER (日本旅行協會)주최 환영회 (조선요리) /조선호텔 1박
	6.19	09:00 유람버스로 경성시내 관광 오찬: 호시가오카(星が丘) 13:30 鐵道會館에서 「말씀(御話)」

8) 사타 이네코 전집 제18권에 수록된 연보(『佐多稻子全集』第十八卷 昭和54年 6月10日)는 이하라 미요시(伊原美好) 및 사타 이네코 연구회(佐多稻子研究會)가 공동 작업으로 작성했다.

9) 佐多稻子, 『佐多稻子全集』第十八卷, 講談社, pp.509-510(이하, 텍스트 인용은 전집으로 통일하고, 논자의 줄여에 의함)

10) 사타 이네코 연보에 대한 재검토는 2003년 이하라 미네요시의 논문 「연보- 사타 이네코의 전쟁 기간중의 재검토로써 (年譜-佐多稻子の戦時下の見直しとして)」에서 판명된 부분에 대한 논지를 전개했다.(伊原美好, 『日本文学論叢』 第32卷, 法政大学大学院, 2003, pp.18-20)

	저녁 조선히텔에서 좌담회 (조선여성들과 함께)/조선히텔 1박(경성)
6.20	10:20 경성 발 00:20 개성(開城)도착, 자동차로 시내관광 (박물관-양궁-선죽교-만월대-전매국) 17:50발 「대륙(大陸)」호로 평양 출발 21:35 평양 도착/ 평양 철도호텔 1박
6.21	09:00 호텔출발 박물관-모란대(오마끼 찻집(お牧の茶屋)에서 점심 배로 주암산(酒岩山)까지 올라가서 하행, 기생학교에서 저녁(赤壁) 조선 기생에 의해/ 평양 철도호텔에 숙박
6.22	09:38 평양발 「희망(のぞみ)」호로 14:20 경성도착, 직통 경성 발 14:20 침대차로 내금강(內金剛)/ 차에서 1박
6.23	05:15 내금강 도착, 조식(내금강 산장) 도보로 명경대(明鏡台)왕복-만폭당(萬瀑堂)-정양사(正陽寺) 내금강 산장에서 1박
6.24	아침 일찍 내금강 산장출발 장안사(長安寺)-미휘리(未輝里)-(자동차)-온정령 입구(溫井嶺口)(도보)-육화암, 온정리-(자동차)로 外金剛 산장이동/ 외금강 산장에서 1박
6.25	외금강 산장 출발, 자동차로 신계사(神溪寺)-구룡연(九龍淵)왕복, 온정리로 돌아옴 /21:01 온정리 발 열차를 타고 경성에 도착/ 열차에서 1박
6.26	07:00 경성도착, 휴양을 위해 조선가정 수공예 견학 21:10발 열차로 대구(大邱)/ 열차에서 1박
6.27	06:45 대구도착, 조식 후 버스로 경주역 고적유람 불국사(佛國寺) 도착 / 불국사에서 1박
6.28	05:00 기상, 이른 아침 석굴암(石窟庵) 왕복, 여관으로 돌아와서 조식, 08:00 불국사 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10:50 부산 도착 11:45분 발 연락선으로 시모노세키도착 19:30 귀로에 오르다.

자료출처:日本旅行協會 朝鮮支部 (필자가 도표로 정리함.)

위 일정표에서 두 여성작가의 조선여행에 대한 행적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쓰보이 사카에는 사타 이네코의 권유에 의해 문학자로 데뷔한 이래,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¹²⁾ 이들은 함께 조선여행을 했고, 쓰보이 사카에의 연보에도 조선여행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 총독부 철도국 초대로 사타 이네코와 들어서 조선을 보름정도 과도한 스케줄로 여행한다. 그 때 사 온 한복이 마음에 들어 사진에 담아 다른 사람

11) 『로바(驢馬)』 동인 중의 한 사람인 문학 평론가 구보카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郎)와 1927년 결혼하여 구보가와 이네코(窪川稲子)로 작가활동을 전개했고, 1945년(41세)로 이혼하면서 필명 사타 이네코(佐多稲子)를 사용했다. (『全集』第十八卷, p.512)

12) 1932년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 탄압으로 구보가와와 쓰보이 시게지가 검거된다. 남편이 형무소에 있는 관계로 서로 알게 되어 작가대비를 권유했고 쓰보이가 죽는 날까지 30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全集』第十八卷, p.502)

에게 보여준다. (쇼와 15년 11월 「조선 여행」, 쇼와 17년 봄 「조선의 추억」). 코스는 경성, 개성, 금강산, 평양(사타 이네코 「조선 인상기」, 쇼와 16년 5월)에서 사카에에게는 여러 가지 실패담이 있다. (「조선 금강산 숙소에서」)¹³⁾

쓰보이 사카에는 「조선 여행」, 「조선의 추억」, 「조선의 금강산 숙소에서」 등 조선관련 수필을 남겼다. 두 여성작가는 조선을 여행하며 조선여성 2명과 함께 한복차림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두 번째 조선여행은 1941년 만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마모토 히로시(浜本浩)와 함께 들렀는데, 만주여행 일정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조선 호텔 정원에서 하마모토 히로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다. 하마모토와 함께 두 번째 조선여행을 할 무렵, 사타 이네코는 시국에 영합하는 여행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만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재차 하마모토 히로시와 조선에 들렀다. 지난번 조선 여행은 손님 대우를 받는 여행이어서 ‘떴떴하지 못한’ 느낌이었지만, 만주와 조선 행에서는 일본 옷이나 여름철 중국 옷을 입기도 하며, 제법 여행 기분을 내며 여유마저 보인다. 또 남아 있는 사진에서는 오염함을 풍기는 것도 보인다.¹⁴⁾

사타 이네코가 하마모토 히로시와 조선을 재차 여행할 무렵에는 시국에 편승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쇼와초기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함께 등장했던 작가는 나프(*전일본무산자 예술연맹)에 소속되어 소설을 쓰는 한편, 『여성노동자와 프티 부르주아 여성(婦人労働者とプチブル婦人)』(『전기(戰旗)』, 1929.11), 『고바야시 다키지의 죽음은 학살이었다.(小林多喜二の死は虐殺であった)』(『働く婦人』, 1933.4) 등 혁명을 목표로 하는 평론을 잇달아 발표하며 저항(抵抗)했다. 일제국주의 탄압으로 나프가 붕괴된 이후에는 문학자의 전향이 속출했고, 대부분의 문학자들이 시국에 순응하거나 편승해도 그녀는 1939년까지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저항의지를 관철하고 있었다.¹⁵⁾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시작으로 문학자에 대한 언론 탄압을 한층 강화하였고, 1942년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學報國會)를 설립

13) 朝鮮総督府鉄道局の招待で佐多稻子と二人で朝鮮を半月程過密スケジュールで旅行する。その時、買ってきた朝鮮服が気に入って写真にとり、人にみせる(昭和15年11月「朝鮮の旅」、昭和17年春「朝鮮の思い出」)。コースは京城-開城-金剛山-平壤(佐多稻子「朝鮮印象記」昭和16.5)で榮にはいろいろ失敗談があった。(「朝鮮金剛山の宿で」)(伊原美好, 『日本文学論叢』, p.19)

14) 위의 책, 『日本文学論叢』, p.20

15) 岩淵宏子・北田幸枝, 『日本女性文学史』, ミネルヴァ書房, 2005, p.229

하여 모든 문학자를 집결시키며 전쟁수행을 위해 헌신할 것을 종용했다. 대부분의 문학자는 전지위문과 점령지 선무공작(占領地宣撫工作: 국민이나 점령지 주민에게 정부, 혹은 본국의 의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을 위해 징용(徵用)되어 엄청난 양의 전쟁문학(戰爭文學)과 전지문학(戰地文學)을 써야 했다. 후루야 노부코(古屋信子, 1896-1973)와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를 비롯하여 사타 이네코도 많은 보고문(報告文)을 작성했고¹⁶⁾, 『속편 여성의 말(続·女性言葉)』(1942)에 정리되었다. 이들 여성작가의 보고문은 결과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전쟁협력을 촉진하고 전의고양(戰意高揚)에 일조한 셈이다. 전쟁말기에 이르면서 이러한 문장들은 서서히 꼬리를 감추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 초대로 처음 조선을 여행할 무렵, 사타 이네코는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조선의 각 도시를 돌며 조선인을 대할 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만주 일일신문사」에 소설을 연재한 것도 1940년 해이며, 조선 총독부 철도국으로부터 초대되어 쓰보이 사카에를 불러내어 둘이서 여행을 한 것도 같은 해다. 내가 일본 밖으로 나온 최초였다. 이 때 나로서도 조선에 대한 일본이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의 각 도시를 돌며 조선인을 접할 때 떳떳하지 못한 기분은 그런 탓이었다.

私が「滿州日々新聞」に小説の連載したのも1940年のこの年であり、朝鮮総督府鉄道局から招待されて、壺井栄を誘って二人でその旅行をしたもの同年である。私の日本の外に出た最初であった。このとき私にしる、朝鮮に対する日本というものの考え方はうずくまっていた。朝鮮の各都市を廻り、朝鮮人に接するときのうしろめたい気持はそのせいであった。¹⁷⁾

일본에서 조선인과 접할 기회가 있었던 작가는 조선의 땅을 직접 밟고 조선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 작가는 1939년 『분신(分身)』을 발표하고 전운(戰雲)이 감도는 가운데, 소녀 주인공을 등장시킨 『맨발의 소녀(素足の娘)』(1940)를 암울한 정세 속에서 발표했다. 1937

16) 사타 이네코가 남긴 자료에 의해 당시의 그녀 자신의 행동과 동시에 동행자들의 움직임도 명확해졌다. 특히 여성작가들의 동향을 살피는 실마리가 되었고, 남방뿐 만 아니라, 만주·중국에 전지위문을 갔던 여성작가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나왔다. 『都新聞』에는 1942년 6월 25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병사와 여류작가 지나전쟁 5주년 좌담회(兵隊と女流作家支那事變五周年座談會)」이다. 좌담회 참석자는 佐多稲子、林芙美子、眞杉靜枝、美川きよ、古屋信子등이고 전지위문에 관한 체험을 말하고 있다.(長谷川啓, 「戰爭と女性」 『昭和文學研究會』, 第41卷, 2000, p.164)

17) 『全集』第三卷, pp.399-400

년 발생한 부부갈등 문제는 시국적 암울함과 더불어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상이 붕괴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각조차 희미해져 통속적으로 흘러갔고 여성작가로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힘겹게 헤쳐 나가는 작가’¹⁸⁾ 라는 평가마저 무색해졌다.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심정, 기분전환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선여행은 자신이 처한 어두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며 사상적으로 후퇴하는 길이었다.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뉴스를 화제로는 하되 흘러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 있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특히,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인세가 계속 들어옴으로써 부부담합이 한층 통속적이 되어 서로가 제멋대로 지향하던 것을 허물어트리고 있다는 의식도 일상 속에서 희미해졌다.

ドイツ軍がマジノ線を越えた、というニュースを話題にはしても、流れるものをただ追っている感じでしかなかった。殊に私は、おもいがけず印税がつづいて入ったということで夫婦狎れ合って一層、通俗的になり、おたがいがかって志向したものを崩しつつあるという意識も、毎日の中で稀薄にした。¹⁹⁾

이와 같이 전쟁이 임박할 무렵에는 프로작가라는 의식에서 동떨어져 암묵적으로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여성과 민중을 위한 전위(前衛)에 앞장서서 추구하던 가치관의 변화조짐과 맞물린 구보가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郎)의 연애사건은 결과적으로 전향(轉向)의 길을 초래한다. 『맨발의 소녀』를 간행한 후, 통속적으로 변해갔고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를 추구하는 작품에 몰두하였으나, 일제국주의의 여성 활용정책에 역이용당한다. 1940년 조선총독부 철도국 초대에 응한 조선여행과는 달리, 중국, 만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로 전지위문에 따라나서며, 그녀의 전쟁협력은 일종의 면종복배(面從腹背)²⁰⁾라는 자기기만으로 위장되었고, 전후 프로작가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전쟁책임에 대한 비판대상이 되었다. 사타 이네코는 자신의 전쟁협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거쳐, 일본의 여성과 민중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적 측면을 역설했다.

사타 이네코의 조선여행은 조선 총독부 철도국 초대라는 점에서 조선의 식민지화를 선전할 목적으로 초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와서 작가는 ‘조선에 대한 일본’이라는 내면적 갈등을 경험한다.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화한 일본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작가의 조선여행은 조선 총독부 철도

18) 『全集』第三卷, p.399

19) 『全集』第三卷, p.399

20) 北川秋雄, 『佐多稻子研究』, 双文出版書, 1993, p.247

국 초대에 의해 이루어졌고 작가의 양심을 괴롭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3 「조선인상기」 속에 나타난 조선

3.1 경성(京城)의 아름다운 황궁우(皇穹宇)

일본 여행협회 조선지부가 작성한 「구보가와, 쓰보이 사카에 두 여사의 내선 일정표」를 살펴보면, 1940년 6월 16일 밤 11시 동경 역을 출발하여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을 거쳐 18일 오후 1시 45분 경성에 도착한다. 조선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곧장 조선 총독부 철도국을 방문하고 조선신궁(朝鮮神宮) 참배로 향했다.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와 메이지천황 두 인물을 받드는 조선신궁에 먼저 참배한다.

天照大神と明治天皇の御二柱を祀(まつ)る朝鮮新宮へまず参拝する。21)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초대인만큼 작가는 형식적으로 ‘조선신궁’에 참배해야 하는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쇼와초기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처럼 피지배민족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조선의 소녀(朝鮮の少女一、二)」(『驢馬』, 1928.5)에서 조국을 빼앗기고 부모를 따라 이주했던 순진무구한 조선의 소녀를 통해 조선민족의 비애를 드러내는 저항 시를 발표했고, 『맨발의 소녀』(1940.3)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묘사했던 작가였으나, 시국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²²⁾ 기타가와 아키오(北川秋雄)는 「식민지 문학과 사타 이네코(植民地文学と佐多稲子)」²³⁾에서 작가가 ‘시국에 영합’하는 자세를 취하는 프로작가로서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선인상기」에서는 경성을 방문하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와 메이지천황 두 인물을 받들어 모신 조선 신궁에 먼저 참배한다고 모두(冒頭)에 기록하고, 시국에 영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성·평양의 왕성한 서민생활과 삼천년에 걸친 역사의 무게감에 대해 감동과 존경하는 마음을 기록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필치에서 프롤레타리아 작가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21) 『全集』第十六卷, 1979, p.336

22) 拙稿, 『사타이네코(佐多稲子)의 朝鮮人像(一)』, 日本學報, 第68輯, 2006, pp.234-235

23) 北川秋雄, 『佐多稲子研究』, 双文出版書, 1993, p.246

「朝鮮印象記」では、京城を訪問して天照大神と明治天皇の御ニ柱を祀(まつ)る朝鮮新宮へまず参拝すると冒頭に記し、時局に迎合する形を取りながら、一方では開城・平壤の旺盛な庶民の生活や三千年にわたる歴史の重みについて感動や尊敬の念を記し、植民地朝鮮への思いを語る筆遣いには、プロレタリア作家としての片鱗が窺える。²⁴⁾

이처럼 조선 총독부가 한창 조선의 병참기지화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경성에 도착한 작가는 여행자로서 조선의 특징을 발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제국주의는 을사조약(1905년)을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조선에 대한 실권을 장악한 후, 같은 해 12월 20일 통감부와 이사청(理事庁)관제를 공포한다. 새 통감부 청사는 2층 형태의 목조로 동감관저와 나란히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건립되었고 남산에서의 조선통치가 시작되었다. 남산에는 통감부 청사와 통감관저, 그 뒤에는 조선신궁을 세워 자신들의 야욕을 채워가고 있었다.

1937년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전 관동군 사령관)는 『가정의 벗(家庭の友)』 6월호에서 ‘조선부인의 각오(朝鮮婦人の覺悟)’라는 내용으로 조선에 대한 총력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여성들에게도 시국에 눈뜨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진정한 일본국민의 절반인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깨닫고 충분히 마음을 배려하기를 바란다.’²⁵⁾는 내용으로 연설하며, 조선여성을 대상으로 포섭에 열을 올렸고, 조선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兵站基地)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조선 총독부는 오랜 역사를 지닌 조선민족에게 1937년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の誓詞)를 제정하고, 1938년에는 일본어 사용과 조선어 사용금지, 색의권장(色衣勸奨:일본식 의복착용), 신사참배 강제(神社參拜 強制)등, 장기적으로는 지배의 영구화를 도모하며 단기적으로는 조선의 인적자원의 전력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1939년 11월에는 조선 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가 설립되었고 한 달 후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하는 우를 범한다.

이와 같이 조선이 일제국주의의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변해가고 있을 무렵, 사타 이네코는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에 몸을 싣고 배에서 1박을 하며 부산을 거쳐 조선의 땅에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경성이었다. 경성에 도착하여 「조선」다운 점을 발견하고 싶은 기대에 부풀었으나, 막상 도착해서 역 근처를 걸어보니 경성의 모습은 내지(*内地:일본)의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조선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안내되었던 남산에서 사타 이네코는 넓고 높은 돌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하얀 저고리를 입은 조선 여성과 아이들의

24) 앞의 책, 『佐多稻子研究』, p.246

25) 綜合女性史研究會,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吉川弘文館, 2000, p.170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설렌다.

푸른 신록의 산 한 가운데를 곧게 위쪽으로 뻗어있는 넓은 돌층계를 바라보니, 마치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다. 돌층계 위에는 신사의 지붕조차 보이지 않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보일 뿐이다. 그 돌층계를 흰 저고리를 입은 조선 여성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올라가고 있다. ‘아! 조선에 왔구나’ 하고 그 때 나는 생각했다. 산꼭대기에 있는 넓은 경내에서 조선의 여자아이 셋이 “가위 바위 보”를 하며 이긴 사람이 그 수만큼 뛰어오르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가위 바위 보’는 우리들의 ‘가위 바위 보’와 같았다. 말하는 어조도 어딘가 닮아 있다. 여자 아이의 목소리는 귀엽지만,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그 말은 전혀 다르다. 웬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緑の山のまん中を広くまっ直ぐに上まで延びている石段を仰ぐと、まるで雲の中へ登ってゆくようだ。石段の上にはお社(やしろ)の屋根さえ見えず、空に浮かぶ雲が見えるばかりである。その石段を白衣の朝鮮婦人が子供の手を引いて登ってゆく。ああ、朝鮮へきた、と私はその時思う。山の頂きの広い境内で、朝鮮の女の子たちが三人でじゃんけんをして勝ったものが数だけ飛んでゆくあの遊びをしていた。じゃんけんは私たちのじゃんけんと同じらしい。言っている言葉の調子もどこか似ている。女の子の声は可愛いが、近づいて聞けば、その言葉はまるきり違っている。何だか変な気がした。26)

남산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백의의 조선여성(白衣の朝鮮婦人)’을 보고, 비로소 작가는 ‘아아! 조선에 왔구나(ああ、朝鮮へきた)’ 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받으며, 여행자로서 가슴이 설레는 순간을 맞는다. 남산 꼭대기에 있는 넓은 경내에서 조선의 여자아이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조가 일본어의 그것과 같지만, 오히려 작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묘사한다. 조선은 일본과 언어가 다른 민족임을 실감한다.

그리고 남산의 경내에서 내려다보이는 경성시내의 모습은 시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돌산이 일본의 도시와는 다른 정경으로 이미지화된다. 경성에는 크고 작은 양옥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고 복잡한 대도시라는 점을 차츰 알게 된다.

조선다움이 제일 복잡한 것도 역시 이러한 언뜻 보아 내지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대도시로써의 경성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차츰 알게 되었다. 만약,

26) 『全集』第十六卷, p.336

창덕궁, 경복궁 부근을 본다면, 조선의 세련된 도시의 모습이 강하다는 것을 틀림없이 느낄 수 있다. 종로 거리를 걷고 있는 저녁 무렵, 직업여성들의 가벼운 발걸음, 그녀들은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다. 또 대낮에 도로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노인들, 활기에 찬 야시장, 원색의 삼베와, 야채, 레몬, 그림책들이랑, 그런 야시장으로 나오는 대로를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그 머리 위로 축음기 가게에서는 「지나(支那)의 밤」이라는 노래가 조선어와 일본어로 흘러나온다.

朝鮮らしさが一番複雑なものやはりこうした一見内地と変わらないかのような大都會としての京城であるに違いない、ということがだんだん分ってきた。もしも、昌徳宮、景福宮付近を見るならば、朝鮮の洗練された町の面影が強いのを感ずるにちがいない。鍾路通りを歩いてゆく夕方に職業婦人たちの軽い足どり、彼女たちは上衣(チョゴリ)にスカートをはいている。また日中の道の傍に手枕で寝ている老人たち、活気のある夜店、原色の麻の布や、野菜やレモンや繪本や、そんな夜店が出る通りを人がいっぱい埋めている。その頭の上を、蓄音器店からは「支那の夜」の唄が、内地語と朝鮮語とで流れてくる。²⁷⁾

위 인용문은 대도시 경성의 특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경성에 대한 첫인상은 일본의 도시와 별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내지의 도시와는 다른 경성만의 복잡함을 나타내는 조선다운 경성의 특징을 차츰 알게 되었고, 경복궁, 창덕궁 부근에서 경성의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발견한다. 종로의 거리 풍경에 대한 묘사는 당시의 정세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다. 경성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어와 내지어로 된 차이나의 밤(支那の夜: 지나의 밤)²⁸⁾이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다. 이 노래는 1938년 와타나베 하마코(渡辺はま子)라는 일본 여가수가 부른 노래이다. 가사는 일제국주의의 대륙침략을 미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부와 결탁해서 만들어졌다. ‘중국의 밤, 중국의 밤이여/ 항구의 불빛 보랏빛 저녁에/ 아아 아아 잇을 수 없는 호궁(胡弓)의 소리/중국의 밤 꿈의 밤이여’ 라는 가사인데, 당시 조선민중에게 대륙침략에 대한 동경을 자연스럽게 주입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노래가 일제강점기 1940년대 종로거리의 한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작가는 조선호텔에서 일본인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양

27) 『全集』第十六卷, p.336

28) ‘支那の夜 支那の夜よ 港のあかりむらさきの夜に のぼるジャンクの夢の船 ああ ああ 忘れぬ 胡弓の音 支那の夜、夢の夜’ 노래는 와타나베 하마코라는 일본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로, 일 제국주의는 1938년 대륙침략을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많은 주제를 퍼뜨렸다. (손건호, 『송전호 전집18-난의 길 진리의 길』, 2002

식을 먹고 있는 부유한 조선인 가족과 호텔정원에 세워진 태조의 신위를 모신 아름다운 황궁우(皇穹宇)에 시선이 머무른다.

조용한 조선 호텔 식당에서는 다니엘·다류와 꼭 빼닮은 일본여성이 남편과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옆에 부유인 조선인 가족이 모여서 양식을 먹고 있다. 호텔의 마당 끝에는 이태조님 왕전하가 만드신 팔각형의 그림누각 황궁우(皇穹宇)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

落ちついた朝鮮ホテルの食堂では、ダニエル・ダリューによく似た内地婦人が夫と子供と食事をしている傍らで、富有な朝鮮家族が揃って洋食を食べている。ホテルの庭先には、ホテルの庭先には、李太王殿下の造られた八角形の画桜皇穹宇が美しく建てている。²⁹⁾

이처럼 ‘이태왕전하’가 만드신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름다운 황궁우를 묘사하고 있는데, 영락해버린 조선왕조의 쓸쓸한 터는 호텔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호텔이 자리 잡고 있는 터에는 고종 34년(1897) 조선의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현재의 소공동에 원구단을 축조하고,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선포하고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다.³⁰⁾ 황궁우는 1899년 8각 3층 건물로 축조되어 자주독립의 의지가 담긴 사적지라 할 수 있다. 하늘에 제를 올리던 원구단과 황궁우, 석고단이 원래 존재했으나,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일제는 1913년 4월 원구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평 580평 규모의 철도호텔을 착공하여 이듬해 완공하는데, ‘조선의 맥을 차단할 목적이었다.’³¹⁾ 고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답도(踏道)는 봉황문양이나 황궁우는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세워졌기 때문에 중국과 동등하게 격을 높인 점이다. 이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작가는 한 때의 권력을 상징했던 조선 왕조의 영락을 아름다운 황궁우에 비유하고 있다.

3.2 개성(開城)의 이미지

사타 이네코가 경성을 출발하여 개성에 도착한 날은 1940년 6월 20일이었다.

29) 『全集』十六卷, p.337

30) 「2006년 겨울 경성을 찾아 나선다」 한겨레21, 2006년 1월 10일자

31) 조선총독부는 1911년 2월에 원구단 일대의 토지 6,750평과 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원구단의 석축을 헐어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조선히otel을 지었다. 북쪽의 남은 땅에는 총독부 도서관을 지어 원구단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했다.(「2006년 겨울 경성을 찾아 나선다」 한겨레21, 2006년 1월 10일자)

오전 10시 20분 경성을 출발하여 새벽 12시 30분 개성에 도착한 후, 자동차로 개성박물관을 비롯하여 양궁 터, 선죽교, 만월대, 전 매국을 관광하고 오후 5시 50분발 「대륙」호로 평양에 가는 매우 짧은 일정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임박할 무렵, 김 달수(金 達壽)씨는 개성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는 경성에 머무르는 동안, 고려의 도움이던 개성에 가고 깊은 염원을 품고 있었는데, 특별한 용무는 없었지만 일본에 있을 때부터 개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개성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경성에 와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또한 조선 철도국내에서 개성 역은 1, 2등 역에 해당되며 보통 조선인이 역장(驛長)이 될 수 없는데, 개성만큼은 예외였다.³²⁾ 그는 개성 역에 내려 1박을 했고 그때의 인상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회상하면서 과연 훌륭한 도시였고, 거리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이 하나 있을 뿐,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이나 상점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개성에서 일본인 상점에 대한 무언의 불매동맹(不買同盟)이 성립된 이유를 알 것만 같다고 전한다.

이처럼 일본인 상인이 들어가기 힘들었던 개성에 사타 이네코는 짧은 일정으로 둘러보았고, 「조선인상기」에서 개성은 조선의 오랜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의 궁지 속에 존재하는 마을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의 땅 색은 붉다. 하지만 조선 고래의 마을 색은 회색이라고 하는 풍의 인상을 받은 것은 개성이었다. 여행자가 바라는 조선다움은 개성에 와서 발견했다. 개성은 개성 자신의 궁지에 살아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있는 마을의 빛깔은 회색이었다. 회색이라 함은 마을의 있는 모습에 대한 형용이 아니라, 시각에서 오는 마을의 색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회색’이라는 느낌은 개성의 마을뿐 만 아니라, 오래되고 조선다움이 농후한 것에서 한결같이 느껴졌다. 경주의 마을에서도 불국사 건물에서도 금강산의 아름다운 몇몇 절에서도 조선의 민가에도.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정강이까지 걷어 올린 맨발로 머리에만 우아한 관 같은 갓을 쓰고 있는 백성인 할아버지의 모습에도.

朝鮮の土の色は赤い。が、朝鮮の古來の町の色は灰色であるという風な印象を感じたのは開城であった。旅行者の求めた「朝鮮」らしさは、開城にきて見出された。開城は開城自身の誇りに生きている、という風な感じである。そしてこの自らに生きている町の色は灰色であった。灰色というのは町の在り様の形容ではなく、視覚に来る町の色のことである。そしてこの朝鮮の灰色の感じは、開城の町だけではなく、古い朝鮮らしさの濃いものに一樣に感じられた。慶州の町にも、仏国寺の建物にも、金剛山の美しい幾つかの寺にも、朝鮮の民

32) 金達壽, 『朝鮮』, 岩波文庫, 1953, pp.135-136

家にも。着物は泥によごれ、脛(すね)までまくった跣(はだし)で、頭だけ優雅な冠のようなかぶりものを置いている百姓の爺さんの姿にも。33)

위 인용문에서, 사타 이네코가 개성에 대한 이미지를 회색(灰色)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조선의 고래의 마을의 빛깔을 회색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작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개성에 대한 이미지는 ‘회색’이며, 경주에 있는 마을은 물론, 불국사 건물과 금강산의 아름다운 몇몇 절에서도 조선의 민가와 맨발에 머리에만 우아한 갓을 쓰고 있는 조선의 할아버지의 모습에서조차도 조선의 이미지를 회색으로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의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작약이나 모란, 자주고름, 단청 등의 선명한 빛깔을 간과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조선다운 것은 회색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로 수필은 인간생활의 질서와 윤리를 존중하고, 도덕적이며 교훈적 내용을 담는 장르이다. 하지만 비교적 조선인에 대해 온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작가는 여행자로서 바라는 조선의 특징을 개성에서 발견해 놓고, 조선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탁월함을 회색으로 비하하려는 이중적 심리구조가 엿보인다.³⁴⁾ 프로작가로서 처음 조선에 와서 조선인을 접할 때, 몇몇하지 못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고와는 상반된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당시 만주개척단이 보내 질 무렵, 조선인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풍조가 만연했고, 프로작가였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풍조에 노출되어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인의 한국관에 대해 사타 이네코는 ‘한일합방 이후, 조선인을 경시하던 풍조는 시대가 바뀌어도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에서 내지인(*일본인) 동지라는 암묵(暗黙) 속에 자신을 과시하고 조선인을 경시하며 힘없는 조선인들에게 우월(優越)을 나타내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조선인에 대한 일종의 ‘우월주의(優越主義)의 변형’³⁴⁾에서 비롯되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작가는 조선의 4대 범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종루에서 바라본 개성의 인상은 회색이며, 옛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라

33) 『全集』第六卷, p.337

34) 사타 이네코는 『순백과 자주(白と紫)』에서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였다>고 회상하면서도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인을 차별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거의 숙명과도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며 ‘경성거리를 무책임하게 절반은 교만하게 다녔다’고 한다. 때문에 조선다운 회색의 느낌은 안심하고 조선의 오랜 역사 속에 살아있는 자부심마저 느끼게 했다고 묘사하는 자체가 일본인의 주체넘음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全集』第三卷, p.399)

34) 말하자면 일본인 한 사람 한사람은 조선인에 대해서조차 일종의 비하 감을 가졌고, 그 변형된 것으로써 우월적 과시가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뿌리 깊은 저항에 대한 계산적인, 혹은 무지한 공포의 변형이었지요, 라고 밝히고 있다.(『全集』第五卷, p.270)

고 묘사한다.

조선다운 회색이라는 느낌은 안심하고 조선의 오래세월 속에 살아 있는 궁지조차 느끼게 했다. 개성은 그러한 마을이었다. 우리들은 개성에 와서 처음으로 조선에 온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남대문의 낮은 돌층계를 올라가서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을 열고 위로 나오면, 조선의 4대 범종 중에 하나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굵직한 멧을 풍기는 종ی 있다. 이 종루에서 내려다본 개성의 마을은 조용하게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집들은 낮으며 회색이었다. 왼편으로 약간 높은 곳에 있는 박물관이 눈에 띄었다. 박물관의 연분홍색 건물은 빛깔이 조금 신선하여 풍우에 빨리 씻기지 않으면, 개성의 마을 빛깔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속에 조용하게 옛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고요한 느낌은 역시 있다.

この朝鮮らしさの灰色の感じは安心して朝鮮の古さに生きている誇りをさえ感じさせた。開城はそんな町であった。私たちは開城へきて初めて朝鮮へ来たように思ったりした。南大門の古びた石段を登って鍵のかけられている門を開けて上へ出ると、朝鮮四大梵鐘のひとつだという高麗時代に造られた太い味のある鐘がある。この鐘樓から見渡す開城の町は、静かに呼吸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屋並(やなみ)低く灰色なのである。左手の小高い所に博物館が目立っている。博物館の薄もも色の建物は、色が少し新しく、早く風雨に洗われなければ、この町の色に調和しないかと思われる。が、その中に静かに昔の美を抱いてひっそりとしている感じはやはりある。³⁵⁾

여기에서 작가가 말하는 개성의 이미지는 가장 조선다운 회색이며 조선의 궁지마저 느끼게 하는 색이라는 것이다. 개성은 고려시대의 역사적 자취를 품고서 개성만의 궁지와 고요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작가는 언덕에 세워진 박물관(博物館) 건물은 새로 지은 연분홍색 건물이기 때문에 신선함을 주지만, 개성의 마을 빛깔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풍우(風雨)에 빨리 씻겨야 할 것만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개성에 대한 인상은 일제국주의가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살아야하는 조선인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다. 작가는 ‘조선다운 회색이란 안심하고 조선의 오랜 세월 속에 살아있는 궁지’ 라고 표현했으나, 전후 그녀는 『순백과 자주』에서 개성에 대한 느낌이 자신에게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³⁶⁾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35) 『全集』第十六卷, p.337

‘일본인의 주제넘음’ 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조선인을 비하하는 풍조가 만연하던 시절 무의식중에 작가도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개성의 박물관에는 백자와 청자가 납부되어 있다고 묘사하며, 이곳에서 조선의 도자기에 매료된 작가는 하나하나 손바닥으로 집어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정도로 소유욕이 절로 생긴다며 감탄한다.

여기에 납부된 백자와 청자의 아름다움은 섬세하고 고귀하여 하나하나 손바닥으로 감싸보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한다. 이곳의 도자기만큼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다. 여기의 관장은 조선 사람이지만, 과연 박물관 관장다운 차분하고 슬픈 풍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박물관 돌층계에서 관장 딸 두 명이 놀고 있었다. 다섯인지 여섯 살 쯤으로 인형처럼 하얀 피부에다 뺨이 부드럽고 품격이 있는 여자 아이들이다. 돌층계는 더러움이 묻지 않아서 맨발로 놀고 있다. “여기에 오면 안 돼, 집으로 돌아 가” 하고 내지어로 이야기하는 관장의 말에 우리들을 올려다보면서 서둘러 뛰어 내려간다. 약간 긴 원피스 차림의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문득 나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보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였다.

ここに納められている白磁の美しさは、繊細で高貴で、いちいち掌に抱いてみたい欲望を感じさせる。ここの陶器ほど所有欲をそそるものはない。ここの館長は朝鮮の人であるが、如何にもこの博物館の館長らしい靜かに悲しい風格のある人であった。博物館の石段に館長のお嬢さんが二人遊んでいた。五つか六つの年頃で、お人形のような色の白い、頬の柔らかそうな品のある女の子たちである。石段は汚れていないから跣で遊んでいる。ここに來ていてはいけない、おうちへお歸り。と内地語でいう館長の言葉で、私たちを見上げ、急いでかけ下りてゆく、やや長めのワンピースの子たちを見ていたら、ふと私は、その子のお母さんを見たい、という欲望にかられた。37)

박물관 관장은 조선 사람이었고, 그는 관장답게 차분하고 안정된 인상을 주지만, ‘슬픈 풍격(悲しい風格)’ 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며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의 고통과 비애를 도출한다. 또한 박물관 뒤쪽 양궁 터에서는 활쏘기 시합이 있었는데, 모여든 구경꾼 중에는 양복 입은 남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모두 조

36) 어린 시절 만월대에서 꿈을 키웠던 마해송은 아름다운 고향 개성에 대해 일본의 여성작가가 가장 조선답다며 ‘회색’으로 보는 자체가 큰 슬픔이었다. 지인이던 마해송이 말하는 순백과 자주를 굳이 느끼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고 고백한다. 조국에 대한 애정은 빛깔조차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앞의 책, 『사타 이네코의 작품연구』-인간평등의 간망 pp. 160-161)

37) 『全集』第六卷, p.338

선 복(*한복)을 입고 있는 머리에만 우아한 관(優雅な冠, *갓)을 쓴 할아버지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이곳을 조금 벗어나면 인삼 밭이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인삼은 개성의 특산품으로 일제에 의해 거의 수탈당한다.

3. 3 평양(平壤) - 신흥조선의 열기

일정표를 보면 1940년 6월 20일 오후 5시 50분발 대륙 호를 타고, 저녁 9시 35분에 평양에 도착하여 철도호텔에서 1박하고, 다음날 21일 9시에 호텔을 나와 모란 대에 있는 오마끼의 찻집(お牧の茶屋)에서 점심을 먹고 배로 주암산까지 올라가서 하항하고, 평양 기생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철도 호텔에서 다시 1박을 하고, 다음날 9시 38분 경성으로 향했다.

사타 이네코는 9시 30분경 평양역에 도착하니, 제일 먼저 흰 옷을 입은 조선인 노동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평양은 왕성한 악취를 풍기는 신흥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했고, 평양의 금수산 아래에 세워진, 800년 고려의 왕이 군신들과 연회를 베풀었던 부암루(浮磐樓)의 모습을 떠올리며 대동강의 분위기를 전한다.

역전의 이런 왕성한 조선의 악취는 그대로 평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능라금수라고 부르는 금수산 아래, 능라도(綾羅島)를 눈앞에 두고 세워져 있는 부암루에 와서 서면 8백년 옛날 고려왕이 군신과 모여 화려한 연회를 펼쳤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대동강은 과연 내지의 강과는 분위기를 달리하는 토지와 의 경계도 없이 넓게 흐르고 있다.

駅前のこの旺盛な朝鮮の臭気は、そのまま平壤を象徴しているようである。綾羅錦繡と称せられている錦繡山の下、綾羅島を目の前にして建っている浮磐樓にきて立てば、八百年の昔高麗の王が群臣と会して華やかな宴を張ったというおもかげが語られる。大同江はさすがに内地の川とはおもむきを異にして土地との境もないような広さで流れている。³⁸⁾

평양에는 중화학 공장에서 뿜어내는 냄새로 인해, 작가는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지독한 악취를 느꼈다고 한다. 조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투자 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며 1920년대 압록강과 그 지류에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세웠다. 이를 계기로 함흥과 평양에는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과 섬유공업이 발달하였고, 대부분의 생산물은 일본으로 보내졌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될 무렵, 군수공업의 성격이 한층 강해졌다.³⁹⁾ 이후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38) 『全集』第十六卷, p.338

39) 金達壽·姜在彦·李進熙·姜德相, 『教科書に書かれた朝鮮』, 講談社, 1979, p.208

각종 지하자원이 증산되었던 것이다.

한편 저녁 무렵 남량배가 강으로 나왔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창에 대해, 애조 섞인 아리랑과는 다른 인간이 낼 수 있는 독창적인 소리로 느끼고 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도 아닌데, 연회를 하는 놀잇배 옆을 지나가는 시커먼 석탄을 나르는 뱃사공의 기세는 마치 대동강의 주인처럼 역동적인 모습이었다.

아! 인간이란 이런 소리도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행사가 있지도 않는 그 날, 누군가 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할 정도로 배들이 많았다. 기생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놀잇배 옆을 시커먼 석탄을 운반하는 배가 석탄으로 검게 된 돛을 올리고 지나간다. 사공도 또 피부색은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검게 더러워져 있다. 그리고 이 사공의 거친 기세는 마치 대동강의 주인이 아닐까 할 정도라고 한다.

ああ、人間とはこんな声も出すのである、と思わせられる。別にもの日でもないというその日、誰か遊ぶのであろうかと思うほどたくさんの舟である。妓生もいるらしい。そしてこの遊びの舟の傍らを、まっ黒な石炭運びの舟が石炭に黒くなった帆を上げて通る。船頭もまた肌の色は見えぬまでにどこもかも黒くまみれている。そしてこの船頭の意気の荒さは、まるで大同江の主でもあるかのほどだとのこと。40)

대동강 놀잇배를 바라보고 있던 작가는 문득 대동강 하부 쪽 지평선 부근에서 흰 옷을 입은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공장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근처에는 대동문의 커다란 지붕이 보였다.

그 놀잇배 위를 넘어 가만히 보고 있으니, 대동강 하부의 아득한 지평선 부근을 개미처럼 계속해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다. 옷이 희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주변에는 하늘로 굴뚝이 나란히 세워진 큰 공장 근처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장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무엇인가 빨 같은 것이 달리고 있는 그 속력으로 보아 트럭 같았다. 오른 쪽으로 조금 가까운 곳에 대동문(大同門)의 큰 지붕이 보인다.

その遊びの舟の上を越してじっと見ていると、大同江の下方のはるかな地平線のあたりを、蟻のように続いて人の通っているのが次第に分ってくる。着物が白いのでそれが人だということが分る。その辺は空に煙突の立並んだ大きな工場のあたりなので、きっと工場から帰る人達でもあるのであろう。何か角なものが走っているその速力で、トラックらしいということになる。右手のやや近

いところに大同門の大きな屋根が見えている。41)

평양의 일본인 주택지는 경성만큼 일본식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았고, 조선 사람들(朝鮮の人々)로 왕성함이 넘치고 있었다. 평양박물관은 삼천년의 역사를 뽐내고 있었고, 전신을 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왕비의 미라나, 정교한 화장도구, 상자, 바늘, 직물 등의 유물을 본 작가는 조선 문화의 발달에 감탄한다. 또한 고이즈미(小泉)관장이 많은 유물발굴에 성공했다는 신문보도와 사토부윤(佐藤府尹)이 자신들에게 평양의 새로운 공업도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며 총독부 초대를 의식하는 표현도 적고 있다.

작가는 만약 개성이 조선의 전통적인 궁지가 살아있는 곳이라면, 평양은 신흥 조선의 왕성한 열기에 차있고, 이 때문에 공장에서 뿜어내는 지독한 악취가 평양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6. 맺는 말

본고에서는 사타 이네코가 1940년 처음으로 조선을 여행하고 남긴 수필 「조선인상기」에서 경성, 개성,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우선 조선총독부 철도국 초청으로 조선을 약 보름정도 여행한 사타 이네코는 경성에 도착하여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조선신궁에 참배하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경성에서는 남산의 정경 속에서 우연히 마주 친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조선 여성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소녀들을 통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경성은 세련된 도시의 미를 갖춘 복잡한 대도시였고, 종로의 활기찬 거리의 풍경과 대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위로 레코드 가게에서는 대륙침략을 미화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성에 대한 인상은 한때의 권력을 상징했던 조선왕조의 영락을 조선호텔에 놓여진 아름다운 황궁우에 애잔하게 비유하고 있다.

개성에서는 여행자로서의 조선다움을 발견하고 그 인상을 회색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타 이네코가 말하는 <조선다운 회색>이란 조선의 오랜 세월 속에 살아있는 궁지에서 표현했다고 하지만, 조선의 땅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조선인>을 비하하는 풍조가 만연했고, 작가도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개성박물관의 관장은 조용하고 슬픈 풍격을

41) 『全集』第十六卷, p.338

지닌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조선인의 고통과 비애를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평양은 화학냄새를 풍기는 신흥공업도시라는 인상을 받는다. 저녁 무렵 대동강에 나온 낚랑배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아리랑과는 다른 창 의 독특한 소리에 매료된다. 그 놀잇배 옆에는 시커먼 석탄을 나르는 뱃사공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평양의 밤거리는 경성처럼 일본식으로 정돈되어 있지는 않지만, 큰 공장과 흰 옷을 입은 노동자들, 지독한 화학냄새와 함께 신흥조선의 왕성한 열기가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参考文献】

- 김은수(2000), 『수필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다나기획, p.12
- 김윤식(1992), 『낮선 신을 찾아서』, 일지사, p.323
- 김태준(2004),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p.6
- 박애숙(2007), 『사타 이네코의 작품연구』-인간평등의 간망, 어문학사, p.159-160, p.161
- 金達壽·姜在彦·李進熙·姜徳相,(1979), 『教科書に書かれた朝鮮』, 講談社, p.208
- 金達壽(1953), 『朝鮮』, 岩波文庫, p135-136
- 佐多稲子(1977), 『佐多稲子全集』 第三卷, 講談社, pp.339-400
- _____(1978), 『佐多稲子全集』 第五卷, 講談社,p.270
- _____(1978), 『佐多稲子全集』 第六卷, 講談社, p.337, p.338
- _____(1979), 『佐多稲子全集』 第十六卷, 講談社 ,p.336, p.337
- _____(1979), 『佐多稲子全集』 第十八卷, 講談社,p.502, p.512
- 岩淵宏子·北田幸枝(2005), 『日本女性文学史』, ミネルヴァ書房, p.18-20, p.229
- 北川秋雄(1993), 『佐多稲子研究』, 双文出版書, p.246, p.247
- 綜合女性史研究会(2000),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吉川弘文館, p170
- 長谷川啓(2000), 「戦争と女性」 『昭和文学研究会』, 第41卷, p.162, p.164

論文

- 伊原美好(2003), 法政大学大学院 『日本文学論叢』, 第32卷,p.18, p.19, p.20
- 拙稿(2006), 「『사타 이네코(佐多稲子)의 朝鮮人像』(一)」, 『日本学報』, 第68輯, pp.234-235

要 旨

本稿では、佐多稲子が1940年6月初めて朝鮮を旅行した後、隨筆「朝鮮印象記」に京城、開城、平壤を巡って、朝鮮をどう見ているのか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

第一、まず朝鮮總督府鐵道國の招待によって、朝鮮を12日間旅行した佐多稲子は京城に到着してプロレタリア作家として朝鮮神宮に參拜すると冒頭に書いて時局に迎合する形を取っている。京城では南山の風景の中で偶然に見た白衣の朝鮮婦人が子供を引いて登って行くのを見て朝鮮にきたと言うほど強い印象を受ける。だが、朝鮮の少女たちが「じゃんけん」という言葉がまっさり違っているのを聞いて変な気がしたように、言葉が違う民族という点を認識する。京城は朝鮮らしい複雑な都市であり、そのなかで昌德宮、景福宮の付近は洗練された都市のイメージを見せていた。作家はひとときの権力を象徴する朝鮮王朝の零落を朝鮮ホテルに置かれている美しい皇穹宇に喩えられている。

第二、開城に来て旅行者として求めた「朝鮮」らしきを見出したが、その印象は灰色だという。この朝鮮らしきの灰色は安心して朝鮮の古さに生きている誇りの意味だとは言え、実は国を奪われて生きるべきしかない朝鮮の人には残忍な表現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一方、作家は開城の博物館に納められている白磁と青磁の美しさに感動する。ここの館長は朝鮮の人で如何にも館長らしい靜かに「悲しみ風格」の人物と描寫して、朝鮮の人の苦痛と悲哀を導出している。

第三、平壤は駅前で見た白い着物をきている労働者と旺盛な臭いが、そのまま新興工業都市としての平壤を象徴している。夕方、大同江に出ている遊び舟から普通アリランなどで感じている哀調とは違う、生活から切り離して抽象的に「人間」というものを感じさせる唄声に感動する。この遊び舟の傍らをまっ黒な石炭を運ぶ意欲的な船頭の姿を対照的に描いている。平壤の夜の通りは京城のように日本式には整えていないが、新興都市のエネルギーで溢れている平壤は三千年に亘る歴史の重みが存在する町であった。

キーワード：佐多稲子、朝鮮旅行、京城、開城、平壤、皇穹宇、馬海松、朝鮮新宮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137-897) 서초구 양재동 329-6호 3층
電 話 : 011-445-0890
e-mail : whatami04@hanmail.net